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살핀 추석 민심은

"최악의 지역경제 한숨만 내쉬더라"

현 정부 인사 소외·예산 삭감에 불만 높아

광역 경제권 정책 실망·민주당 분발 촉구도

호남지역 의원이 전한 추석 민심은 '한숨'과 '푸념'이었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지역구를 둘러본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15일 계속된 지역 경제 침체에 한숨을 내쉬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이어진 인사 소외와 예산 삭감에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또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주당 분발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강운태 의원(무소속, 광주 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재래시장, 대형할인매장 등을 둘러본 결과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이 주민의 마음 속에 가득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 전해지는 예산안에 호남지역 발전과 관련된 예산이 대거 누락되고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확정돼 가는 데 대해 호남 소외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광주·전남출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현 의원은 호남 지역 추석 민심에 대해 "'우울' 그 자체였다"며 "이구동성으로 '대명절 같지 않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살리기 공약 실천이 가시화되지 않고, 물가고 등 민생이 어려운데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특히 광역권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 호남은 재탕삼탕이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실망감이 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사회가 활력을 잃고 점차 깊은 우울함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실망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대한 기대를 접어가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만은 살릴 줄 알았는데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더욱 나빠졌다고 입을 모았다"며 "특히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취직이 안되는데 공기업 사장 인사에서 호남이 소외돼 그 파급효과가 하부 직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푸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싸우지만 말고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목포)도 "대부분 주민들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대화에서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현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로 대표되는 인사 정책이라든가 또는 쇠고기 문제, 대운하, 방송 장악, 또 부자들과 대기업 재벌들을 위한 무리한 감세 정책, 그리고 촛불 시위자와 네티즌에 대한 탄압 등 일방 통행식의 강권적 공안통치에 대해서 매우 반발하고 있었다"며 "이제 민주당밖에 기댈 곳이 없으니 민주당이 잘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무소속, 무안·신안)은 "주민들이 이번 정부 들어 경제가 좋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며 "또 이명박 대통령과 영남 출신으로 가득한 청와대의 독주가 심해 호남 배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국민은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쉬워했다"며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흔들어대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 추석 민심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장승우(왼쪽에서 세번째) 위원장과 오현섭(〃 네번째) 여수시장이 14일 스페인 사라고사 박람회 폐막식에서 V.G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으로부터 넘겨받은 BIE기 앞에서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IT 강국 걸맞게 유비쿼터스 박람회로"

전시공간도 육지 탈피 해양으로 확대

■ 여수박람회 어떻게 차별화 하나

스페인의 사라고사 박람회가 폐막되고 세계박람회기구(BIE)의 기(旗)가 여수박람회조직위와 여수시로 넘겨짐에 따라 여수박람회의 준비 현황과 기본틀, 그리고 차별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승우 조직위원장에 따르면 조직위는 박람회의 분야별 자문위원회와 고위자문단의 자문 등을 받아 박람회 마스터플랜 시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10월에는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BIE와 국제적인 해양·도시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연말에는 여수박람회 기본 계획을 성안할 예정이어서 박람회의 전체적인 윤곽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현지시간) 사라고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육지중심의 전시공간에서 탈피해 해양으로 전시공간을 확충할 것"이라며 "전시내용도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유비쿼터스 박람회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 박람회 성공의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철도·공항·항만·고속도로 등 시회간접자본시설도 2011년 말까지는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도 착실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해양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수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과 시범사업 등을 내년 말 이전에 확정하는 한편, 해양과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구하는 '여수선언'의 이행방안 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4일 폐막된 스페인 사라고사 박람회에서, 상당수 관람객이 박람회장이 마련된 사라고사에서 머무르기 보다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인근 도시 바르셀로나로 빠져나갔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박람회 성공 개최도 중요하지만, 찾아온 관광객들이 여수와 전남에 머물러 충분히 즐기는 것은 물론 박람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 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여수시 신항 일대 25만㎡에서 개최된다. 민간자본 4천7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여수 박람회에는 전세계 100여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여수박람회 조직위는 예상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010 F1대회 탄력

국회 지원특위 조만간 구성 … 주내 명단 발표

2010년 영암에서 열리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가 조만간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경기지원특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18명으로 이뤄진 특위 위원 인선작업을 마무리, 이번 주 내에 특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경기특위는 F1대회와 함께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남과 대구,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종근 위원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몽준 의원 등 거물급 의원들을 포진시킬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도 해당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특위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국회는 특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에 법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을 한 뒤 이르면 11월께 국제경기 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어서 F1 지원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특위에서 법안을 다루게 돼 법안처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법만 제정되면 F1대회와 관련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전기술·난방공사 지분 매각

한전 인력·예산 10% 감축 추진

■ 3차 공기업 개혁 방안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천연가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민영화에서 제외되지만 인력·예산 10% 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될 전망된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에너지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발표하고 다음달 부문별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전기술·난방공사 지분 매각=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천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끝내기로 한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 민영화하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분의 민간 독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한국전력이 97.94%, 한국원자력연구소가 2.06%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차례 실패한 지역난방공사의 상장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난방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난방공사 총 투자비의 44%(1조3천904억원)를 공사비 부담으로 낸 주민들의 소송으로 중단된 바 있어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전·석탄公 경영효율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와 한전은 인력감축 수준을 놓고 막판 협의중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발전자회사의 건설부문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고 발전연료의 통합구매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력그룹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회사로 분리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다시 합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지경부는 부정적 입장이며 이번 3차 선진화 방안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배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02)397-3000 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